

『피네간의 경야』의 제자 읽기

김 종 건

본 논문이 시도하는 의도와 스티븐 데달러스(Stephen Dedalus)가 『율리시스』(*Ulysses*)의 ‘프로테우스’ 에피소드에서 홀로 갖는 긴 독백을 비교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는 샌디마운트 해변을 거닐면서, 상징들이 하나하나 차례로 다가오는 가청적 경험과, 그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가시적인 것의 차이를 명상한다. 스티븐은 시간을 통해 흐르는, 음악이나 혹은 문학이, 공간 속에 존재하는지, 그 속에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그림 및 조각과 같은 가시적 예술과는 같을 수 없는지 자문한다. 스티븐은 두 가지를 ‘나호아인안데르’(*Nacheinander*)(하나하나 나란히, 가청적인 것)(시간)와 ‘네벤아인안데르’(*Nebeneinander*)(하나하나 차례로, 가시적인 것)(공간)로 구별한다.

이상의 스티븐의 명상처럼, 조이스 자신의 예술에서,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과 공간 밖에 놓인 책인, 그의 걸작 『피네간의 경야』(*Finnegans Wake*)를 17년간(1923-1939)에 걸쳐 씌우로서 그의 궁지(딜레마)를 해결했지만, 특히 작품의 제자에서 우리는 분명히 그러한 궁지의 예를 실감한다.

조이스는 『경야』를 1923년 3월 10일 시작한 것으로 전한다. 1924년에 나중의 『피네간의 경야』의 최초의 초록이 『트랜스 어트랜틱 리뷰』(*Transatlantic Review*)지 및 이어 『트란지시옹』(*transition*)지에 ‘진행 중의 작품’(Work in Progress)이란

제목으로 나타났다. 이 초록은 작품의 제 III부 제 1장의 시작에서 ‘바다 새들’에 관한 것이다:

비공한 채 날카롭게 환희의치며, 저 노래가 해백조를 노래했는지라. 날개 치는 자들, 바다 매, 바다 갈매기, 마도요 및 물떼새, 황조롱이 및 수풀 너조, 바다의 모든 새들이 담차게 돌림노래하자 그 때 모두들 이솔더와 함께 트리스탄의 큰 입맞춤을 맛보았노라.

Overhoved, shrillgleescreaming. That song sang seaswans. The winging ones. Seahawk, seagull, curlew and plover, kestrel and capercallzie. All the birds of the sea they trolled out rightbold when they smacked the big kuss of Trustan with Usolde. (FW 383)

『경야』의 제 III부 제 3장의 ‘심문 받는 온’(Yawn under interrogation) 장면에서, 인민의 4심문자들(또는 대표자들, 대가들, 노인들, 복음자들)이 언덕 위에 누워있는 온에게 당도하여, 그의 머리맡에 앉아 그를 심문하기 시작한다. 그들의 조직적이지요, 무자비한 심문은, (민주적 비평가들의 태도를 따라) 그의 왕계王系の 전술 역사를 불신하면서, 그의 존재 형식의 바로 근거까지 강제로 파괴한다.

특히 『경야』 p. 496에서 심문자들은, 온(땅에 그물로 덮여 지친 채 강박되어 있는, 스위프트의 걸리버마냥)에게 그와 동일 신분이지요, 아버 및 조상인, 주인공 HCE(Here Comes Everybody)을 극악한 조상의 후계자로서 극렬히 매도한다. 그들은 여하자도 이 고약한 HCE와 맞먹을 자 없다고 말하며, 그를 저주 한다:

확실히, 저 늙은 사기꾼은 채농債贖과 숙아宿啞에 있어서 소년배척(보이스카우트)당하고 소녀배절少女排切(걸스커트)당했나니, 구옥丘獄과 천항天港 위에서, 심지어 외국항外國港 방문訪問의 소함대小艦隊에 의하여, 내가 방금 이해하는 대로, 모든 무상無償 속에 악각惡刻되고 광고전단 속에 타구唾具된 채. 떠들떠들이, 뒹굴뒹굴 땅딸보, 벽 위에 앉은 주정뱅이, 백만 인을 위한 묵예默藝

Sure, that old humbugger was boycotted and girlcuted in debt and doom, on hill and haven, even by the snow-the-flag flotilla, as I'm given now to understand, illscribed in all the gratuitouses and conspued in the takeyourhandaways, Bumby, tumbty, Sot on a Wall, Mute art for the Million. (FW 496, my italics)

위의 인용구에서 “당신”(은을 두고)이 “저 늙은 사기꾼”(that old humbugger) (HCE)을 옹호하여 뭘 말할지라도, 그는 타당하게 “타구唾具되였도다”(conspued). (이 말은 『율리시스』 제12장에서 건달인 레너한(Lenchan)의 상투어의 인유이다: “영국놈들을 타도하라! 불신의 영국을!”(*Conspuez les anglais! Perfide Albion!*)(U 267) 심문자들의 이러한 HCE에 대한 매도는 그들로 하여금 화제를 “우리 피네간의 경야를 토론하세”로 전환하게 한다. 이어 그들은 그를 “중탐사하도록” 명령한다:

우측을 향해 말 할지라! 회전자는 신중할 지라! 그는 결코 괴롭힘 받을 수 없지만 상시 경야해야 하는 도다. 만일 현재인 모든 과거 속에 미래가 있다면, *퀴네간을 알지 못할 자는 하자*이고 그리고 *퀴네간의 전율에 하다라*何多樂인고! 땅팔보여! 그의 생산자들인 그들은 그의 소비자들이 아니던고? 곡진행중曲進行中的 정도화正道化를 위한 그의 진상성眞相性을 둘러 썬 그대들의 중탐사衆探査를. 변론할지라!

Speak to the right! Rotacist ca canny! He caun ne'er be bothered but maun e'er be waked. If there is a future in every past that is present *Quis est qui non novit quinnigan* and *Qui quae quot at Quinnigan's Quake!* Stump! His producers are they not his consumers? Your Exagmination round His Factification for Incamination of Work in Progress. Declaim! (FW 496-97, my gothics)

이상의 라틴문을 영역하면: “Who is there who does not know Quinnigan [and] how many(Lots of fun) at Finnegan’s Wake.” 이 구절의 후반부는 아일랜드 전통 민요의 타이틀이다. 조이스는 여기서 자기 자신을 작품의 주인공 HCE와 동일시하고, 그의 작품을 HCE의 제국으로, 그의 비평가들 및 도제들을 재판의 배심원들과 일치시킨다. 이 중 ‘진행 중의 작품의 정도화正道化를 위한 그의 진상성眞相性을 둘러 썬 우리들의 중탐사衆探査’, “Your Exagmination round His Factification for Incamination of Work in Progress”은 『경야』가 아직 집필 중이고, 앞서 ‘진행 중의 작품’(Work in Progress)이란 임시 제목으로 출판 중이었을 때 작성된, 조이스가 조직한 그의 새 작품에 대한 심포지엄 토론의 타이틀이다.

이 행은, 1929년 조이스가 그의 베케트(Samuel Beckett)를 포함한, 12도제徒弟들을 소집하고, 그의 최후의 그리고 가장 어려운 작품에 선행하여 비평적 이해의

수문을 열려는 시도로서, 그들의 논문집을 생산했었다. 그 후 1939년에야 『피네간의 경야』라는 현재의 제자를 지닌, 총 628페이지의 거대한 한 권의 작품을 출판했거니와, 따라서 독자들과 비평가들이 이를 그들의 수중에 넣을 수 있을 때까지, 작품은 위의 구절의 일부인 ‘진행 중의 작품’이란 이름 그대로 계속 알려져 있었다.

그러자, 이 구절에 맞서 온은 자신의 아버 HCE를 옹호하여, 그의 기다란 HCE의 경야 장면을 불러낸다(FW 497.4-499.3).

로스(Danis Rose)나 오한론(John O’Hanlon)과 같은 현대의 비평가들은, 현재의 완성된 『경야』 텍스트를 통하여, 조이스가 마음에 품고 있었으나, 나중에 포기한, 원래의 제목은 *Finn’s Hotel*로서, 이는 “-, i.o..l”(FW 514)과 같은 『경야』 구절의 문맥에 의해 은밀하게 암시된 가능성이라 주장해 왔다. 즉, 아래 구절에서 한심문자는 HCE와 ALP의 결혼 파티에 관해 질문한다. 신랑의 이름과 주소에 대한 심문자의 물음에, 온은 i..’o..l.이라 일종의 모호한 약호로 대답하는데, 이는 조이스가 노라와 첫 정을 나눈 *Finn’s Hotel*의 약자이다. (Mrs von Phul은 약호의 공간을 채우기에는 *Finn’s Hotel*이 최고라고 지적한다)(Glesheen 94).

- 하지만 만일 내가 그의 징후를 보았다면, 만일 그대가 그의 면식 가까스로 가까이할 수 있다면? 그의 이름과 구제소를 델지니 그러면 우리는 오늘밤은 이만 해 두리라!
- ..이.. ’..오..엘.

- Yet an I saw a sign of him, if you could scrape out his acquinttence? Name or redress him and we’ll call it a night!
- ...i..’..o..l.. (FW 514, my gothics)

『경야』가 완성되어 출판되기 전, 그것의 원고에서 발견된 작품의 몇몇 단편집이 앞서 로스에 의해 1993년 바이킹 판에 의해, *Finn’s Hotel*이란 제자아래 출판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조이스 재산 관리 위원회’(the Joyce Estate)로부터 극심한 반대에 봉착하여, 결코 나타나지 않았다. 로스는 『경야』 중의 “로더릭 오코노 왕”(King Roderick O’Conor) 및 “트리스탄과 이졸드”(Tristan and Isolde)를 포함하는, 이러한 단편들이 조이스에 의해 분리된 단편들로 의도되었다고 주장했

을지연정, 다른 학자들은 그들이 조이스가 1923년에 작업하기 시작했던 『경야』를 위한 초기 스케치들임을 믿었다.

『경야』의 최후의 제 IV부는 “회귀”의 장면으로, 한 장(17장)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HCE가 새벽에 잠을 깨는 장면이요, 여명의 시간이다. 이는 또한 산스크리트어의 “Sandhyas”(성화)(T.S. 엘리엇을 유념하라!)란 유명한 말을 시작으로, 동이 튼다. 그것은 부활절의 기도이다. HCE는 잠에서 깨어나려 한다. 곧 만사는, 예전과 꼭 같지만, 변한 채, 새로 시작한다. 아들 주트(Juva)(이전의 손 또는 온)는 부친 HCE(험프리)을 대신할 것이다. 대영국은 대양주(Oceanis)인, 신애란(뉴 에이레)(New Eire)(마치 『율리시스』의 블룸이 밤의 환각에서 선포하는, 자신의 야망인, “미래의 신성 아일랜드의 새 블룸 성지”[the New Bloomusalem in the Nova Hibernia]처럼)(U 395)을 향해 구 아일랜드를 떠날 것이다. 대지(지구)가 그의 축위에 회전할 때, 이어위커(HCE)는 잠에서 깨어나(회귀하여) 그의 침대 속에서 뒹군다:

그건 늙은 채프리 마비자癱瘓者가 그의 은거隱居의 그늘을 찾는 그리고 젊은 상젤리제가 피네간의 경야에 그들의 짝들에게 다유락多愉樂을 치근대는 자신들의 축신호祝信號로다.

It is their segnall for old Champelysied to seek the shades of his retirement and for young Chappielassies to tear a round and tease their partners lovesoftfun at Finnegans Wake. (FW 607, my gothics)

위의 인용구에서 보듯, 이 고무적, 감동의 회귀(recorso) 장면에서 우리는 드디어, 조이스가 지금까지 아껴왔던 『경야』의 재사를 노출함을 읽는다. 이때 무시간과 계절의 환상 속에 피네간(HCE)의 경야의 시간이, 현재의 제자인 “Finnegans Wake”(FW 607)와 함께, 서술 된다. 늙은 채프리 마비자癱瘓者(채프리조드) 경이 자신의 은거의 그늘을 찾는, 그리고 젊은 상젤리제가 그들의 짝들을 다유락多愉樂 치근대는, 신호이다. 시간은 변경變更의 매시每時. 그리하여 각 변화는 새로운 죽음이요, 그것은 우리들의 육체와 피가 뼈를 떠날 때 우리를 최후의 위대한 변화에로 한층 가까이 데리고 간다. 비록 이 구절은 조용한 무시간 또는 계절의 정지의 표현으로 열릴지라도, 여기서 어둠과 잠의 억압 그리고 연속적 빛과 경각이 위

협받고 있다. 태양(그리고 배)은, 침실에 누워 있는 HCE의 붉은 머리카락이 그의 기운 몸통 위로 솟아 있듯, 더블린 만(그리고 더블린 모래사장, 사구砂丘) 위로 곧 들어날 것이다.

이상의 여러 텍스트적 암시들의 고증에도 불구하고, 조이스는 『경야』를 창작하는 동안 “진행 중의 작품”으로만 견지했고, 그것의 진짜 제목을 그의 아내 노라 바너클에게 토로했을 뿐, 그 밖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1923년에 노라는 책의 비밀의 타이틀을 『피네간의 경야』로 역시 알고 있었다.) 만일 어떤 더 먼 증거가 조이스에 대한 노라의 충절에 필요했다면, 그것은 그녀가 17년 동안 홀로 『피네간의 경야』의 제목을 그녀 속에 간직하고 있었다는데 있다. 조이스의 열중은, 엘먼(Richard Ellmann)에 따르면, 그가 명칭들에 애착한 마술적 힘을 나타낸다. 그의 최초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강력한 법전(code)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노라는 ‘짐’의 음주와 돈의 낭비에 대해 화가 커졌을 지라도, 그녀가 보이듯, 책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녀는 언제나 자신이 행사하려했던 복수의 무기를 결코 사용하지 않았다.

조이스가 『경야』의 제목을 언제 결정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조이스는 해리엇 위버(Harriet Weaver) 여사와의 한 편지에서 그가 다른 이들에게 그랬듯이, 그녀에게 작품의 이름을 맞춰보도록 격려한 것으로 전한다. 1927년 5월 12일에, 그는 그녀에게 쓰기를:

H. S. 위버에게:

1927, 5, 12, 파리

...나는 □에 관한 당신의 암시를 사용하려하는데, 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옳은 것 같소. 제자는 아주 간단하고, 있을 수 있는 평범한 것이요. 그것은, 비록 두 단어로 되어있을지라도, 어떤 기지가 암시하는, 키티 오시에와 같은 것은 아니요. 나는 또한 그것으로 어떤 실험을 할 의도인지라, 한층 그것에 관해 생각하기를 바라오... (『서간문』, I. 252)

여기 편지의 기호(siglum) □는 『경야』의 제자를 의미하지만, 다른 기호들과는 달리, 그것은 이내 취소되었다.

엘먼에 의하면, 조이스는, 1927년 4월 런던의 PEN 클럽 모임에서, 미스 위버를 『경야』 속에 끌어들이려는 전술로서, 책의 제목을 알아맞히도록 유도했다. 잇

다른 수개월 동안 그들의 편지는 잘 못된 추측으로 가득했다. 조이스가 의미하는 바는, *Finnegans Wake* = *Fin*(끝) + *again*(재차) 및 *Wake*(각성, 재생)의 이중의 의미를 지녔다. 미스 위버의 암시인즉, “회전하는 사각”(a wheeling square) 또는 “바퀴의 사각 회전”(squaring the wheel)으로서, 이는 틀렸지만, 조이스는 그들이 유용하다는 것을 알았다.

미스 위버의 1927년 5월 19일자 서간에서 이은 암시는 “하나의 사각”(One Squared)이었다. 조이스는 이것 또한 좋아했지만, 그러나 그는 JJ, ACS & Co. 또는 E 와 같은 한층 평범한 것을 재의했다: “The title I have projected is much more commonplace and accords with JJ and S and ACS & Co., and ought to be fairly plain from the reading of E”(Ellmann 597). 이러한 형태의 기호는 풍경 속에 매장된 HCE를 암시했다. (그는 피네간의 매장을 암시하고 있었다.) 6월 13일의 위버 여사의 다음 시도는 “더블린 맥주”(Dublin Ale)로서, Dublin은 ‘doubling’의 말장난이요, 이어 6월 28일에, “아일랜드 아이(섬)”(Ireland’s Eye), “피닉스 파크”(Phoenix Park) 및 그 밖에 여러 가지였다. 그녀는 “핀 맥쿨”(Finn MacCool)을 가지고 한층 가까이 다가갔으며, 9월 17일에 “핀의 도회”(Finn’s Town) 또는 “핀의 도시”(Finn’s City)로 이어졌다. 조이스는, 정작 제자를 그녀가 마치기를 원치 않았고, 단지 그 근처에서 머물기를 바랄 뿐이었다. 따라서 피네간의 정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Ellmann 597).

노라가 그녀의 남편을 놀라게 한 한 가지 방법은 『진행 중의 작품』의 진짜 제목의 마술적 단어들을 그로 하여금 폭로하도록 위협하는 것이었다. 조이스는 그의 친구들로 하여금 대담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맞추도록 하기를 좋아했다. 노라는, 어떤 미스터 플라니건(Mr Flannigan) 및 미스터 샨니건(Sahnigan)에 관한 아일랜드 민요의 음운을 놀리듯 흥흥거리며, 어느 밤 그러한 놀이에 합세했다.

엘먼은 그 장면을 재현했거니와,

조이스는, 깜짝 놀라, 그녀더러 멈추도록 요구했다. 그가 별 탈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신은 분명히, 가수가 그러하듯, *F*와 *W*를 나타내는 듯한 입술 동작을 취했다. “요정의 경야”(Fairy’s Wake), 하고 마리아 줄라스는 추측했다. 조이스는 놀란 듯 보였으며, “브라보! 그러나 뭔가가 빠졌어요.”라고 말했다. (Ellmann 708)

1938년에, 조이스가 놀라게도, 그는 자신의 친구 유진 졸라스(Eugene Jolas)가 “지난 16년 동안 아무도 해내지 못한 나의 책의 재자를 갑자기 맞추었다”라고 쓰고, 자신이 이러한 공과의 가능성에 대해 걸은 내기(현금 1000프랑)를 그가 획득했다고, 그의 친구 크레이그(Maurice J. Craig)(아일랜드의 문인, 건축사의 권위)에게 아래 편지에서 밝혔다:

M. J. 크레이그에게:

1938, 8, 24, 파리

...유진 졸라스는 지난 16년 동안 아무도 해내지 못한 나의 책의 제목을 그가 갑자기 마침내 대해 당신이 그에게 고무적 영향을 끼쳤음에 틀림없소. 고로 그는 내가 성급하게 건 1천 프랑의 상금을 득하게 되었소. (『서간문』, III. 427)

수수께끼를 해결하는 것은 유진 졸라스(Eugene Jolas)에게 온통 밤을 새우게 했고 (그는, 결국, 작품으로부터 많은 발췌문을 말했거니와), 며칠 뒤 8월 2일 밤에 그것을 크게 말했다: “피넬간의 경야!”(Finnegans Wake!). 이처럼, 졸라스는 그날 저녁 파티 식사에서 제목을 발설했으니, 조이스는 창백해졌는지라, 말하기를, “아, 졸라스, 당신은 나로부터 뭔가 귀중한 것을 빼앗아 갔어.”그러나 다음날 아침 그는—작은 동전들이 든 가방에서—자신이 졸라스에게 제의했던 보상을 청산했다.

그리하여 1939년 2월 2일(조이스의 57세 생일날)에 작품의 신비의 재자를 가진 『피넬간의 경야』의 한편의 장정본이 마련되었고, 그 해 봄에 미국의 『타임』(Time) 지는 조이스에게 “핀 다시 일어나다”(The Finn Again Wake)라는 재하의 커버스토리를 제공했다. 그것은 재자가 지닌 많은 층을 이룬 의미들을 설명했다:

게다가 독자들에게 그들이 한 아일랜드의 초저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의 제지는 피넬간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단일 명령문으로 간주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함축인즉, 일상의 사람들은 (그의 주인공처럼) 잠 깨어있지 않다. ‘매인’의 악몽의 존재는 단지 보다 깊은 잠 속에서 끝난다. (『타임』 1939년 5월 8일)

다음으로, 우리는 위의 『타임』 지가 암시한대로, 재자가 품은 실질적 함축의 (connotation)를 살펴 보아야 하겠다.

(1) 조이스는 그의 작품의 제목으로 “Finnegan’s Wake”라는 아일랜드 민요의

이름을 언어유희(punning)하고 있는데, 이는 선천적으로 술을 사랑하는 한 벽돌 운반 공, 팀 피네간 Tim Finnegan(민요의 주된 인물)의 추락(죽음)과 경야, 부활을 유머러스하게 설명한다. 이 민요에서, 술 취한 Tim은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죽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의 경야에서 조문객들은 난폭해지고, 그의 얼굴에다 위스키(whiskey는 게일어의 *usqubaugh*로부터 파생하고, 작품의 아나 리비아 Anna Livia의 역할을 예고하는 이미지인, “생명의 물”(water of life)을 의미한다)를 엿지르자, 이로 인해 그를 코믹하게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고, 군중의 향락에 합세하게 한다. 따라서 이 코믹한 민요는 『경야』 작품의 제자뿐만 아니라, 그것의 코미디성의 근간이 된다. 『경야』에는 이 민요에 대한 암시 및 그 내용의 인유가 무수히 나타나며, 앞서 지적한 대로, 한 곳에는 완전한 제목(Finnegan's Wake)(FW 607.16)이 그대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상의 피네간의 추락(Fall)의 주제는 조이스의 작품에서 온갖 방향으로 뻗어 나간다. “Finnegan's Wake”에서의 사다리로부터의 추락은 모든 다른 추락들이 되고, 따라서 작품에서 팀 피네간은 험티 덤티(Humpty Dumpty), 아담과 사탄, 입센의 건축청부업자(Master Builder), 파넬, 트리스탄과 이슬트, 전설의 마르크 왕, 성서의 술 취한 노아, 낙마한 리처드 III세, 또는 오쟁이 진 핀 맥쿨이 됨으로써 작품의 주제를 돕는다.

(2) 제목(Finnegans Wake)은 아일랜드의 민속담인, 『피안나』(Fianna)(용사들의 무리) 그리고 영웅담인 「오시안의 환」(Ossianic circle)에 나오는 용사-지도자요, 부족의 영웅 및 중심인물인 핀 맥쿨(Finn MacCool)을 함유한다. 그는 아일랜드의 최후의 왕 콜맥(Cormac)에게 봉사한 용사들 중 가장 용감하고, 가장 관대한 자이다. 민속에서 핀(Finn)과 그의 무리는 신화적 상황을 성취했는지라, 그들은 전투에서 승리를 그리고 켈트의 타 세계와 접촉을 가져오는 초인간적 힘을 소유했다. Finn MacCool의 초기 원고는 아일랜드어로 쓰인, 민요이기도 하다.

나아가, 핀 맥쿨은 더블린 도시 밑에 잠자며 누워, 미래의 아일랜드 역사를 살피는, 전설적 용사요, 거인으로, 머리를 호우드 꼭대기(Ben of Howth)에 핀 채, 다리를 피닉스 공원의 노크(Phoenix Knock) 언덕에 묻고 있다. 이는 『경야』의 지리적 해석(topographical interpretation)을 돕는다. 그는 조이스의 잠자는 주인공 HCE의 화신이다. 작품을 통하여, Finn은 아일랜드어의 fionn(white 또는 fair) 즉, *fion*(whiskey)과 상교한다.

Finn MacCool은 또한 건축청부업자(master-builder)(입센 작의 연구 주제이기도)로서, 성 오툴(Lawrence O'Tool)의 요구로, 스웨덴의 룬드(Lund)에서 대성당을 건축하는데 책임이 있었거니와, 한 때 다른 신화적 영웅 Fintan MacBochra로부터 전수한 '연어의 지혜'(the salmon of wisdom)를 지녔기 때문에, 단지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빨음으로써 계몽(enlightenment)을 얻었다 한다.

Finn은 스칸디나비아 조상을 지닌 아일랜드의 거인으로, 『경야』의 북구(Nordic)의 기원을 지닌 주인공 H.C. 이어위커(Earwicker)의 화신 격이다. “동양지제 피네간”(Bygmester Finnegan)(FW 4). 핀(Finn)은 Finland 및 Finnish의 약자요, HCE의 조상 종족을 함유하는 북구 스칸디나비아 신화를 한축한다. 조이스의 『경야』에서 주인공 HCE의 이름은 “피니시(끝) 메이크 골(득점)!”(Finnish Make Goal!)(FW 374)로서, Finn MacCool의 변태로서 나타난다.

(3) 비코의 역사성(Viconian Historicism): 『경야』의 독자는 피네간을 점신론적 또는 비코의 환으로서 “Finn-come-again”으로 당연시한다.

18세기 이탈리아 역사 철학자 비코(Giambattista Vico)는 그의 저서 『신과학』(La Scienza Nuova)에서 역사의 환(circularity of history)을 설파한다. 그에 의하면 모든 사회는 신권정치 시대(theocratic age)에 이어, 귀족정치 시대(aristocratic age), 민주주의 시대(democratic age) 및 회귀의 시대(recorso)로 나아가고, 이는 다시 회전하여 본래로 복귀한다. 『경야』의 구조는 이러한 비코의 사상이 그 배경 막(backdrop, backbone) 또는 하부 구조(substructure)를 형성하거니와, 그것의 작품 구조는 4부로 구성됨으로써, 이상과 같은 비코의 역사의 4단계를 각각 대변한다. (초기의 비평가 Tindall은 그것의 구조를, 1. ‘인간의 추락’The Fall of Man, 2. ‘갈등’Conflict, 3. ‘인간성’Humanity 및 4. ‘부활’Renewal로, 다른 비평가들인 Campbell과 Robinson은 이를 1. “양친의 책”The Book of the Parents, 2. “자식들의 책”The Book of the Sons, 3. “인민의 책”The Book of the People] 및 4. “회귀”Recorso로, 각기 칭하거니와). 이는 『율리시스』의 호머 오디세이 신화의 3부 구조인 “Telemachia, Bloomiad, Nostos”와 대응을 이룬다 할 것이다.

비코의 원시와 그의 회귀의 역사성은 조이스의 『경야』 시작과 끝의 구절들을 연결 한다: 즉, “A way a lone a last a loved a long the”(한 길 한 외로운 한 마지막 한 사랑 받는 한 기다란 그)은 아래 첫 행과 연결 된다:

강은 달리나니, 이브와 아담 교회를 지나 해안의 변방으로부터 만灣의 굴곡까지, 우리를 회환回還의 넓은 비코 촌도村道로 하여 호우드(H) 성(C)과 주원周圓(E)까지 귀환하게 하도다.

riverrun, past Eve and Adam's from swerve of shore to bend of bay by a commodius vicus of recirculation bring us...back to Howth Castle and Environs.
(FW 3)

이러한 우주 및 인간 역사의 순환성은 반복되는 뇌성의 다철어多贅語처럼, 역사의 원초적 단계가 바로 작품의 시작임을 인식함과 아울러, 비코 역사 순환론을 암시하는 추락과 부활의 코믹한 전형으로서 제시 된다:

추락(바바번개개가라노가미나리리우우레콘브천천둥너룬투너너천오바아호
나나운스카운버벼락후후턴우우크!

The fall (bababadalgharaghtakamminarronnkonnbronnbannerontuonnthuntrovarr
-hounawnshawntooohoordenenthurnuk!) (FW 3)

비코의 순환의 역사성의 예는 앞서 『경야』의 그것처럼, 『율리시스』에서도 마찬가지다. 몰리 블룸(Molly Bloom)의 유명한 최후의 글쭈(“그렇지 나는 그러세요 하고 말했어 그렇게 하겠어요 네”)(yes I said yes I will Yes)은 괴테(Goethe)의 『파우스트』(*Faust*)(조이스는 그의 책을 아일랜드의 그것으로 의도했다)에서 메피스토펠레스(Mephistopheles)의 “나는 언제나 육체를 긍정하는 자이다”(Ich bin der Fleisch der stets bejaht)의 대화적 변안이다. 조이스는 자신의 위대한 책의 피날레로서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만사를 조소하는 괴테의 메피스토펠레스적 의학도인, 벅 멀리건(Buck Mulligan)에 의해 의인화된, 책의 냉소적, 합리적, 남성적 서행序行과 균형을 맞추고 있다: “당당하고, 통통한 벅 멀리건...”(Stately, plump Buck Mulligan...)(U 3).

더욱이, 이러한 순환의 역사는 『경야』에서 조이스의 부친과 손자와의 상속적 환에도 적용되는지라, 앞서 비코의 순환에서, 케너(Hugh Kenner)가 지적하듯, 그는 작품의 첫 줄 속에, “past Eve and Adam's”를 삽입함으로써, 조이스의 단시 “Ecce Puer”의 사망한 아버지와 탄생한 손자의 주제를 동시에 함유시킨다. 왜냐하

면, 이 구절은 “Stephen” 뿐만 아니라, “pa”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Kenner to BM, 1987년 4월 27일 참조).

(4) 브루노(Giordano Bruno)의 저서 *De infinito Universo et Mondū*(1584)에서 “반대의 변증법적 과정”(dialectical process of opposites)의 이론: 제자의 “Finnegans Wake”는 종終(프랑스어의 *fin*) + 시始(영어의 *again*) 및 Wake의 결합으로써, 이는 브루노의 학설을 대변하거나, “실재와 가능성은 영원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The actual and the possible are not different in eternity,)는 그의 “Two extreme meet”의 이론은, 예를 들면 HCE의 쌍둥이 자식인 Butt(Shem)과 Taff(Shaun)의 두 적대자는 갑자기 “하나요 같은 사람”(one and the same person)(FW 354)이 된다. 호머의 오디세우스의 이름의 결합에서 보듯(Odysseus=Ody-Noman+ sseus-Zeus), 조이스의 재생된 리오폴드 블룸(Leopold Bloom)처럼, 핀 맥쿨(Finn MacCool)의 현대의 화신인 HCE는 영웅이요 만인(범인)인 셈이다. 이러한 반대의 일치(the coincidence of contraries)는 블레이크(W. Blake)의 『천국과 지옥의 결혼』(*The Marriage of Heaven and Hell*)에서처럼, 반대자의 양극성(polarity of opposites), 즉 브루노의 “반대의 일치”(agreement of opposites)를 함축한다.

따라서, 『경야』 제목은 그것의 등장인물, 장소 및 사건들의 다양한 신원에 의해, 그리고 셈/숀(Shem/Shawn)과 반대의 이원론(opposite dualism) 및 추락/부활, 죄/면죄, 부패/갱신 그리고 놀란(Nolan)과 브라운(Brown) (더블린 시내의 출판자들) 등의 유형학(typology)에 의해, 대표되는 작품의 구조적 및 주제적 구도를 돕는다.

이상의 브루노의 반대의 대응은 『경야』의 다음 구절에서 예증된다:

말뚝 박이의 종료의 들뜬 폭소는 거나한 맥주들이 비조悲調와 산뜻하게 경쟁했나니 마치 그들은 이것과 저것 상대물의 동등인양, 천성의 또는 정신의 동일력同一力, 피자타彼他者로서, 그것의 피자피녀彼子女의 계시啓示에 대한 유일의 조건 및 방법으로서 진화되고, 그들의 반대자의 유합癒合에 의한 재결합으로 극화極化되는 도다.

The hilariohoot of Pegger’s indup cumjustled as nearly with the tristitone of the Wet Pinter’s as were they *isce et ille* equals of opposotes, evolved by a onesame power of nature or of spirit, *iste*, as the sole condition and means of its himundher manifestation and polarused for reunion by the symphysis of their

antipathies. (FW 92)

이 단계에서 재판 받는 피고-페스티-HCE(말뚝 박이)(Pegger)는 손(피고)의 모습을 드러낸다. 법정 of 종료의 들뜬 폭소는 거나한 맥주들이(Wet Pinter)(증인 웹)의 비조와 경쟁했나니, 그들의 반응에 의한 재결합으로 극화된다. 여기 브루노-노란의 위대한 힘, “윤회적 대응”은 공통의 아비에 의하여 생성되는 형제의 역사적 반대-양극을 뒷받침하는 법으로서 존재한다.

(5) 『경야』의 본성은 환적(cyclic)이다. 제목은 시작과 끝을 암시하는 ‘돌고 도는’ 환적 무한성의 가능성(possibilities of cyclic endlessness)을 들어낸다. 작품이 지닌 “팔지의 고리”(the rings of a bracelet) 같은 무수한 환중환(circle within circle)의 작품 구조는, 『경야』어가 품은 무한성의 가능성과 함께, 앞서 비코에서 시작한 역사의 돌고 도는 환 바로 그것이다.

(6) “Finn, again! Take 핀, 다시! 취하라.”(FW 628.14): 조이스는 심지어 아나 리비아(Anna Livia Plurabelle)(그녀의 생명-부여의 바다가 상징하는 약속과 재생의 모성적 전형으로서)의 목소리를 통하여 말해지는 『경야』의 이 최후의 행들에 서까지 제목에 대한 언어유희를 개척하기를 계속 한다.

(7) 핀(Finn)+이건(Egan: 제목은 작품의 주제에 대하여 더 많은 지식을 함축할 수 있다. Finnegan을 분석하면, 아일랜드의 망명 애국자인 케빈 이건(Kevin Egan) (『율리시스』, ‘프로테우스’ 장의 스티븐의 독백 참조)(U 41)을 암시함으로써, 영국과 아일랜드의 정치적 주제를 암시한다.

(8) 핀탄 맥보크라(Fintan MacBochra)의 암시 일수도: Adaline Glasheen 교수는 그녀의 『피네간의 경야: 세 번째 통계조사』(Third Census of Finnegans Wake)에서, 이 자는 성서의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아일랜드 인임을 지적한다. 하나님은 초기의 기독교 현인들에게 아일랜드의 과거 역사에 대해 말하도록 ‘핀탄’(Fintan)을 생존하게 한다. ‘핀탄’은 독수리, 때로서 수세기를 보낸 뒤, 타 세계에서 ‘지혜의 연어’로 화신하는데, 앞서 핀(Finn)은 그의 현명한 엄시손가락을 그로부터 전수 받는다(Glasheen 95).

이러한 ‘핀탄’의 변신(화신)은 『율리시스』에서 스티븐의 아침의 샌디마운트 해변의 인상적 독백을 상기 시킨다: “하느님은 인간이 되고 물고기가 되고 흑기러기가 되고 깃털 포단의 산이 된다”(God becomes man becomes fish becomes

barnacle goose becomes featherbed mountain)(U 42). 여기 데덜러스의 마음은, 마치 거의 수학의 방정식마냥, 변신하고 부활하는 시체로부터 생사의 모든 것들의 연속으로 배회한다. 따라서 이 인용구에서 인용되는 조이스의 아내(Nora) Barnacle의 이름은 기러기(goose)(『율리시스』에는 16마리의 거위geese가 있거나)와)가 삿갓조개(barnacle)로의 변신을 암시한다.

(9) Fingal: 이는 Macpherson이 번역한, 아일랜드의 고대 『오시안』(Ossian) 시집에서 Finn의 이름으로, 그는 스코틀랜드의 영웅이요, 아일랜드로 건너 와, 덴마크 인들과 싸운다. 아일랜드 인들은 어떤 복구의 침입자들을 fingal 또는 fingall로 불렀는데, 이는 “낯 선자”(fair stranger)를 의미한다.(FW 22.10; 46.20).

(10) 『피네간의 경야』의 제자에 대한 단어 “fin”의 조직적 연관을 비평가 마하피(Vicki Mahaffey)는 지적한다: 즉, 1. fin은 귀향을 애쓰는 오디세우스적 연어(salmon)의 귀향 및 편 맥클 이 맞본 지식의 연어(the salmon of wisdom) 2. 물고기(salmon)의 지느러미(fin) 3. 트웨인(M. Twain)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에서 주인공 허클베리 핀이 오디세우스 자신처럼 자유와 생존을 위해 누워있는, 미시시피 강에서 되풀이하여 죽고, 소생하는 귀환(이상 JJQ, Vol.47, No. 1, Fall 2009 참조). Twain의 소년 주인공 Huck Finn은 Finn MacCool과 겹친다. Huck와 Tom Sawyer는 죽음을 포기되고, 이어 그들 자신의 장례에서 부활한다. “등 혹을 가진 혁”(Huckle-backed)은 곱사등의 HCE 격이다. (조이스는 트웨인의 작품을 1937년 8월에 그의 손자 데이비드 플레이시먼 David Fleischman에게 선물했다.)(Ellmann 699).

(11) Finnegans Wake은 Finn’s Hotel의 기원을 이룬다. 이는 조이스가 노라를 처음 만났던 호텔 이름이요, 그녀가 폴웨이에서 상경한 이래 “slavey”로서(Gogarty의 말로) 일했던 곳이다. 이는 노라가 자신을 제임스 조이스에게 효과적으로 선사했던 장소인, 핀즈 호텔의 상호이다(그것은 트리니티 대학을 내려다보는 그의 벽면에 아직도 선명하다).

Finn인 HCE는 F-inn keeper이기도 하다.

(12) 조이스는 『경야』의 페이지들을 들락날락하며 작품 제목의 인유들을 짜는 바, 그리하여 『경야』와 『켈스의 책』(Book of Kells)을 설명하는 그림들과 철자들에게 두드러진 아라비아풍의 장식 간에, 자주 이루어지는 비평적 인유를 유념 한다. 이러한 인유들은 문장이나 구절의 운율이나 음률에 있어서, 다른 형태들을 고용한

다. 예를 들면, “팀 핀 재삼의 연약한 부족”(Timm Finn again’s weak tribes)(*FW* 93.35-36) 또는 “피네간에게, 다시 죄 짓도록 그리고 험상궂은 할멈으로 하여금 헤르랑 거리도록 그리고 다시 허죽거리도록 하려고”(to Finnegun, to sin again and to make grim grandma grunt and grin again)(*FW* 580.19-20)

(13) 여기 조이스는 또한 제목이, 다른 의미를 가운데, 세계의 피네간들로 하여금 깨어나도록[경야하도록]하는 명령을 포함할 수 있도록 소유격을 생략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Wake”란 말은 우리말로 “경야,” “철야,” “부활,” “항적,” “각성,” 그리고 wake에 의하여 재생되는 “시곡체 屍穀體”(cropse)의 암시 등을 함축하거나와. 이처럼 『경야』어는 그 단어가 지닌 모든 의미가 텍스트 해석에 다 적용되고 이해되는 종합어(synthetic language)이다. 따라서 『경야』의 텍스트는 단지 문장만을 읽어서는 안 되며 그를 구성하는 단어 하나하나의 세밀한 연구와 해체(dissolution, decomposition) 및 재구성(reconstruction) 속에 읽혀져야 한다.

앞서, 『경야』의 주된 신화구조인, 이 인기 있고 코믹한 민요 “피네간의 경야”(Finnegan’s Wake)는, 범속한 노래로서, 우리나라의 “아리랑”이나 “도라지 타령”과 같이, 대중에게 아주 친근하고, 다양한 편곡들을 갖는다. 저자는 미상이요, 19세기 초에 작곡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야』에는 이 민요에 대한 암시 및 그 내용의 인유가 무수히 나타나는지라, 앞서 이미 지적대로, 한 곳에는 제목(Finnegan’s Wake)이 그대로 나타나기도 한다. (앞서 *FW* 607.16 참조) 『율리시스』의 「사이렌」장에서 「까까머리 소년」(“The Croppy Boy”)의 빈번한 음조의 출몰처럼, 『경야』에 있어서 그것의 모자이크 성을 식별하기 위해 우리는 아래 민요의 가사를 일별할 필요가 있다:

「피네간의 경야」

팀 피네간은 워커(보행자) 거리에 살았대요,

한 아일랜드의 신사, 힘센 자투리.

그는 작은 신발을 지녔는지라, 그토록 말끔하고 예쁜,

그리고 출세하기 위해, 한 개의 호두(나무통)를 지녔대요.

그러나 팀은 일종의 술버릇이 있었나니:

술에 대한 사랑과 함께 팀은 태어났대요,

그리하여 매일 자신의 일을 돕기 위해

그 놈의 한 방울을 마셨나니 매일 아침.

코러스

철썩! 만세!—이제 그대의 파트너에게 춤을!
마루를 차요, 그대의 양발을 흔들어요,
내가 그대에게 말했던 게 사실이 아니고,
피네간의 경야의 많은 재미를?

어느 아침 팀은 오히려 속이 거북했나니,
머리가 무겁고 그를 건들거리게 했대요.
그는 사다리에서 떨어져 두개골을 깨었으니,
고로 모두들 그를 낚았는지라, 그의 시체를 경야에로.
모두들 그를 멀끔한 천으로 단단히 묶었대요,
그리고 그를 침대 위에 눕혔는지라,
발치에는 한 깔런의 위스키를
그리고 머리맡에는 한 통의 맥주를.

그의 친구들이 경야에 모였대요,
피네간 마님이 식사를 소리쳐 불렀나니:
그리하여 맨 먼저 모두들 차와 케이크를 들여왔대요,
그런 다음 파이프와 담배 및 위스키 편치.
비디 모리아티 아씨가 소리치기 시작했으니:
“여태껏 이토록 아름다운 시체를 보았나요?
아아, 팀 내 사랑, 왜 당신은 죽었나요?”
“입 닥쳐요,” 주디 매기가 소리쳤는지라.

그러자 폐기 오코너가 그 일을 저질렀나니,
“맙소사, 비디,” 그녀가 말했지요, “너의 잘못이야, 분명히,”
그러나 비디는 그녀에게 입에 한 대 먹었대요.
그리고 그녀를 마루 바닥에 뺨어 눕혔는지라,
쌍방이 이내 전쟁을 시작했나니:
그건 여자 대 여자 그리고 남자 대 남자:
몽둥이 범이 모두의 분노였는지라
그리하여 경찰 소동이 이내 시작되었대요.

미키 마로니가 그의 머리를 쳐들자,
그 때 한 깔런의 위스키가 그에게로 날랐대요.

그것이 빗맞자, 침대 위에 떨어지면서,
술은 팀 위에 뿌려졌대요.
“아흐, 그가 되살아났도다! 그가 일어나는 걸 봐요!”
그러자 티모시, 침대로부터 꺾충 뛰면서,
말했대요, “그대의 술을 빙빙 날릴지니 불꽃처럼—
악마에게 영혼을! 그대 내가 죽은 줄 생각하는고?”

코러스

철썩! 만세!—이제 그대의 파트너에게 춤을!
마루를 차요, 그대의 양발을 흔들어요.
내가 그대에게 말했던 게 사실이 아닌고,
피네간의 경야의 많은 재미를?

이처럼 조이스는 『경야』를 쓰면서, 적어도 그것의 근거를 극히 대중적(또는 “저속한”) 소재 위에 두고 있다. 작가는 이 대중의 민요로부터 인간의 죽음과 부활의 주제, 거리의 노래 속에 부동하는 무사無死의 영웅들과 부활 신의 소재를 따왔다. 이는 『경야』 자체가 표면상 아무리 어려운 고전이라 하더라도, 대중의 보드빌(vaudeville)(희가극)이 그 기저를 이루고 있는 이상, 그것은 단지 지식인(highbrow)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보통의 사람”을 위한 것임을 입증한다. 왜냐하면, 비록 지식인의 요소가 그 표면에 마치 다엽茶葉처럼 부동할지라도, 그 본질은 달인(blew) 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작품의 제자의 범속성은 주인공 HCE의 통속성을 암시한다.

이상의 『경야』 제자의 분석을 요약하면:

- (1) 역사적, 신학적 해석(Vico)
- (2) 철학적 해석(Bruno)
- (3) 신화적 해석(Tim Finnegan)
- (4) 전설적, 지리적 해석(Finn MacCool)
- (5) 정치적 해석(Kevin Egan)
- (6) 언어적 해석(게일어: *fionn*)
- (7) 문학적 해석(Ibsen)

『피네간의 경야』 제자의 분석은, 이상의 문학적 고고학자들이 보여주듯, ‘복잡다기한 전도’(polymorphous perversity)(Norman O. Brown에게 신세지거니와)를

떠며, 노라 바나클의 말대로, 언어 ‘잡채’(chop suey)로서, 그것의 다국적 (polyglot) 언어의 실체는 모체(matrix)와 그 측음적側音的(부차적) 요소(lateral element)로 구성되는, 동음이의(homonym)이다. 이상과 같은 제자의 석의적 분석 (exegetical analysis)은, “텍스트는 이런 식을 읽어야한다”는 『경야』 작품 전체의 해독 법을 예증하고, 보여 준다 할 것이다.

(고려대)

인용문헌

- Atherton, James S. *The Books at the Wake*. London: Faber and Faber, 1959.
- Beckett, Samuel. *Our Exagmination round His Factification for Incamination of Work in Progress*. Paris: Shakespeare and Company, 1929.
- Benstock, Bernard. *Joyce-Again's Wake*. Seattle and London: U of Washington P, 1965.
- Burgess, Anthony. *Here Comes Everybody*. London: Faber and Faber, 1965.
- _____. *A Shorter Finnegans Wake*. London: Faber and Faber, 1966.
- Campbell, Joseph and Henry Morton Robinson. *A Skeleton Key of Finnegans Wake*. New York: Viking, 1966.
- Cheng, Vincent John. *Shakespeare and Joyce: A Study of Finnegans Wake*. The Pennsylvania State UP, London, 1984.
- Connolly Thomas E. ed., *James Joyce's Scribbledehobble, The Ur-Workbook for Finnegans Wake*. Evanston: Northwestern UP, 1961.
- Deane, Seamus ed., *Finnegans Wake*. London: Penguin, 1992.
- Litz, A. Walton. *The Art of James Joyce: Method and Design in Ulysses and Finnegans Wake*. New York: Oxford UP, 1961.
- Ellmann, Richard. *James Joyce*. New York: Oxford UP, 1959.
- Glasheen, Adaline. *Third Census of Finnegans Wake: An Index of Characters and their Roles*. Los Angeles, London: U of California P, 1977.
- Hart, Clive. *Structure and Motif in Finnegans Wake*. London: Faber and Faber, 1962.
- McHugh, Roland. *Annotations to Finnegans Wake*. Baltimore and London: Johns Hopkins UP, 1980.
- Norris, Margot. *The Decentered Universe of Finnegans Wake: A Structuralist Analysis*.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76.
- Rose, Danis & John O'Hanlon. *Understanding Finnegans Wake: A Guide to the Narrative of James Joyce's Masterpiece*. New York: Garland, 1982.
- Tindall, William. *A Guide to Finnegans Wake*.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1969.

Abstract

Reading the Title of *Finnegans Wake*

Chong-keon Kim

The title of James Joyce's last work *Finnegans Wake* has multi-faceted symbolic significances and allusions. The time when Joyce decided on the title is not known and unclear. When he started the work, he revealed it to his wife Nora Barnacle only, but to no one else. In May 1927, through his friend Harriet Weaver he got his siglum for the title of book: □. It, however, remained to be only suggestion and ambiguity. In 1938, to Joyce's astonishment, his another friend Eugene Jolas correctly guessed the title: *Finnegans Wake*. Joyce decided on *Finnegans Wake* and intended a pun on the name of the Irish ballad "Finnegan's Wake," the spellings of which appear later directly in the page 607 of the text.

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title of *Finnegans Wake* both thematically and linguistically and to search for the various connotations it incorporates: a high number of intertextual allusions and references to other texts. The title is populated by a number of major themes and concerns of the book, and it enumerates such as *Finnegans* fall, the promise of his resurrection, the cyclical structure of time and history, the motif of warring brothers, Vicoian historicism and Brunoian theory of the polarity of opposites, etc. Furthermore, the title is also evocative of another Irish folklore hero Finn MacCool. Joyce continued to exploit the title's play on words in many ways, like the voice of Anna Livia Plurabelle, the murmuring river-heroine of the text.

All in all, Joyce weaves many allusions to the title in and out the pages of the text, taking on different forms on the historical, philosophical, mythological, legendary, linguistic, cultural bases. Such exegetically analytic methodology of the title of the text might be the desirable and ideal way of reading a story in the whole text, which takes the form of a discontinuous dream-narrative, with abrupt changes to characters, character names, locations and plot details, etc.

■ **Key words** : James Joyce, *Finnegans Wake*, H. C. Earwicker, Anna Livia, Vico, Bruno

(제임스 조이스, 피네간의 경야, H. C. 이어위커, 애나 리비아, 비코, 브루노)

논문접수: 2011년 5월 4일

논문심사: 2011년 6월 8일

게재확정: 2011년 6월 13일